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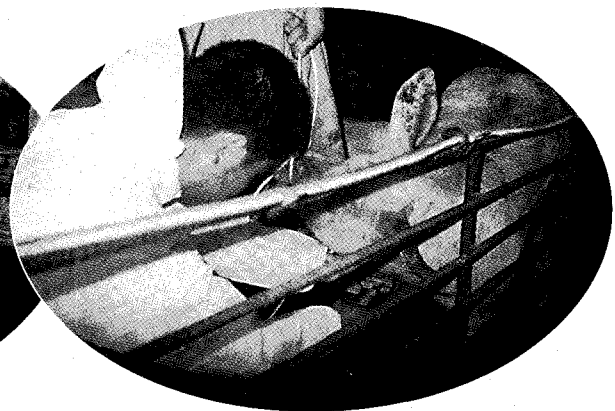
순수간방역단체로 출범한 돼지콜레라비대본이 구제역 발생이후 지난 6월21일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확대개편되었기에, 앞으로 방역본부에서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조기근절을 위해 더욱 열심히 방역지원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을 위해서 예방접종 100%실시를 목표로 하여 각 농장별 채혈검사 및 방역실태 확인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곧 정부의 결정이 있으리라 본다.

구제역이 더 이상 재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 아래 적어도 내년 6월까지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돼지콜레라에 대한 야외바이러스 검색도 검사기관에서 더욱 확대 실시해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100% 실시해야겠으며, 방역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채혈검사와 농가별 방역확인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



당초 비대본의 목표는 정부의 방역대책 일정에 따라 2000년 9월말까지 예방접종을 100% 실시한 후 10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2001년 4월에는 청정화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대일수출이 중단되었고 구제역 비발생국으로 인정받기 이전까지는 대일돈육수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어차피 돼지콜레라 박멸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난 8월 3일 농림부 가축방역중앙협의회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시점에 대하여 박멸대책을 좀 더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방역본부는 8월말 현재 17,705호의 177,358두를 채혈하여 검사 의뢰했으며 농가방역 실태조사는 누계 72,297호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하였다.

전국의 양돈농가 통계는 24천여호로 발표되었으나, 실제 시·군 방역요원이 조사한 양돈농가는 지난 8월말 현재 22,687호로서, 이중 멧돼지·흑돼지 사육농가 1,379호, 자돈판매농장 5,226호, 1~2두만을 사육하는 소규모부업농가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채혈검사 가능농가는 약 15천호 정도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농가별 채혈시에는 모돈을 일정비율 포함하여 채혈토록하고, 멧돼지·흑돼지에 대한

채혈검사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항체양성률 동향을 보면, 지난해 1월 74.6%에서 9월 95.4%를 보인 이후 금년 4월부터는 각 도 지역에서 96.1%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금년 7월중 검사결과에 의하면 3,848호 검사농가중 항체양성률 80% 미만 농가가 180호나 되고, 이중에서 항체 0%인 농가가 8농가로 확인 되어 경각심을 주고 있다.

물론 구제역 발생 이후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이

소에 검사의뢰를 하는 등으로 철저한 농장관리를 해야만 한다.

그동안 돼지콜레라 방역에 너무 백신에만 의존했던 것이 청정화를 지연시켰다는 면도 부정할 수 없지만, 작년 7월말 용인시 지역의 발생 이후 14개월동안 발생이 없으므로 예방접종 금지시점이 확정될 때까지는 100% 예방접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구제역 발생 이후의 축산업 전망의 불확실성

**각 농장마다 다시 한번 더 예방접종 실시를 점검해야겠고,**

이를 등한시하는 양돈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전체가 방역에 동참토록 해야겠다. 질병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적기에 실시하는게 기본이며, 1주일에 1회씩이라도 농장에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농장출입차량, 특히 돼지 출하 운송차량은 세척·소독한 차량만을 출입토록 해야 한다. 또한 돈가 하락시에 떨어뜨리가 많이 유통될 수 있으므로, 돼지 구입시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육농장인지 먼저 확인하고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의뢰를 하는 등으로 철저한 농장관리를 해야만 한다.

일시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겠으나, 앞으로 돼지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예방접종을 더욱 소홀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농장마다 다시 한번 더 예방접종 실시를 점검해야겠고, 이를 등한시하는 양돈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전체가 방역에 동참토록 해야겠다.

질병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적기에 실시하는게 기본이며, 1주일에 1회씩이라도 농장에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농장출입차량, 특히 돼지 출하 운송차량은 세척·소독한 차량만을 출입토록 해야 한다.

또한 돈가 하락시에 떨어뜨리가 많이 유통될 수 있으므로, 돼지 구입시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육농장인지 먼저 확인하고 가축위생시험

때문에 박멸기금 모금이 극히 부진하여 2~3개월 동안 방역본부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 8월말 농림부에서 축발기금으로 운영비, 자산구입비, 사업비로 1,254백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이제 새로운 활력을 되찾게 되었기에 이 난을 넘어 우선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린다.

하루 속히 구제역 비발생국가로 인정받고 돼지콜레라를 청정화하여 안정적으로 국내 양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

양돈업계가 주축이 되어 전체 축산농가가 참여토록하고 양축농가가 힘을 모은다면 결코 어렵지 않으며, 분명히 우리는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제주도의 성공적인 청정화대책 추진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앞으로도 방역본부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참여와 지원을 당부드린다. 양돈